

# 유류품 잇따라 발견...미수습자는 어디에

### 세월호 수색 사흘째...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등 추가 발견 일곱살 학규군 고려해 진흙 속 유해 찾기 3mm 특수 체 투입 남학생 머물던 4층 객실 진입로 뚫어...선체 수색 속도낼 듯

세월호 4층 중앙부에 새로운 통로가 뚫렸다. 두번째 진출입구로,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던 객실의 끝 부분이다. 미수습자 수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내 수색이 이어지면서 휴대전화 등 유류품도 추가 수습됐다.

20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18일에 이어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A데크(4층) 선수 좌현 객실 끝부분(선체 중앙 인근)에 가로 1.2m, 세로 1.5m 크기의 두번째 진출입구가 열렸다.

처음 열린 통로가 4층 선수 객실의 앞쪽이라면 이날 뚫은 통로는 이 객실의 뒤쪽 끝 부분이다. 이 곳에는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고 있었다.

A데크 선수 좌현 앞부분에서 수색된 한 조를 투입해 작업하던 것에 이어 두 번째 진출입구가 생기면서 추가 수색팀이 투입돼 선체 수색이 종전보다 배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수색된 한 개조를 더 편성했다"며 "좌현 앞부분 8명, 객실 끝부분 8명이 함께 작업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내 수색 사흘째인 이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유류품이 속속 수습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견된 디지털정보기기는 휴대전화 4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다.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는 A데크(4층) 선수 부분에서 수습돼 곧바로 선체조사위원회에 인계됐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기기는 잠사 당시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진상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복원 가능 여부는 2주 후 판가름난다.

인양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 선내 수색 이틀째인 19일 A데크(4층) 선수 부분에서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됐다. 이로써 그동안 인양·수색과정에서 수습된 유류품은 모두 183점이 됐다. 뱃조각(동물뼈 추정)은 42점이다.

선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필에서 유골을 찾는 작업도 본격화됐다. 세월호 옆 공간에는 필을 물로 씻어내며 미수습자 흔적과 유류품을 찾는 작업이다.

현장에는 3mm 구멍 크기의 특수제작체가 설치된 펄 분류작업대가 설치됐다. 체

의 구멍 크기를 3mm로 좁게 설정한 것은 미수습자 중 가장 체구가 작은 권혁규(당시 7세) 군의 뼈와 치아 크기를 고려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해발굴 권위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와 송장건 유해발굴 전문가의 교육과 자문으로 시험 분류작업을 시행했다.

진도 침몰해역에서는 수중 수색이 실시되고 있다. 수중 수색은 침몰 지점 주변에 쳐놓은 유실방지용 철제 펜스 안 42개 구역 가운데 18개 구역을 마쳤다.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뱃조각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르면 5월말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예산안이 확정되고 직원을 채용해야 조사가 가능 시점이 확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체조사위는 21일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증거 서류들을 누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선조위가 넘겨받는 기록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법원, 감사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위원회 심판 기록 등이다. 선체조사위는 이미 조사가 진행된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선체에서 나오는 직접 증거와 비교 검증하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펄 세척작업** 20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특수제작된 세척기를 사용해 펄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달아오른 대선에 광주·전남 고발사건 잇따라

### 문재인 치매설' 비방자 기소 '호남홀대론' 반박 유인물 배포 경선 선거인단 동원 의혹 등 검·경 6건 조사 중·처리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관련 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

한)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총 6건을 조사 중이거나 처리했다.

검찰은 인터넷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 의심 증상'이라는 제목의 문 후보 비방글을 작성·게시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됐다. 하지만 A씨는 비방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호남홀대론'을 반박하는 유인물이 무단 배포된 사건도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광주지 남구 노대동에 '호남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유인물 수배장이 배포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공보물 외에 개인이 무단으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유인물을 뿌리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문재인 후보의 자녀 취입에 대한 허위사실 72건을 SNS에 게재한 사건, 전남 도선관위가 고발한 국민의당 지역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도 대선 관련 사건 2건(고발 1건, 인지 1건)을 수사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대구 초등생들 '달빛친구 맺기'

### 송원초, 대구 영신초 144명 초청 역사문화체험

광주·대구 초등학생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역사문화체험에 나선다.

광주 송원초는 21일 대구 영신초등학교 4학년 학생 144명을 초청, 5·18 자유공원 등을 둘러보는 '달빛친구 맺기' 행사를 연다.

달빛친구는 대구와 광주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학교는 지난 2015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문화마을, 담양 죽녹원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은 문화전당 투어 뒤 민주광장에 있는 민중항쟁 알리탑에 두 학교 학생 240여명이 헌화하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송원초 관계자는 "두 지역 친구들이 우정을 쌓아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항소심서 5~8년 감형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 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13년·1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의 유·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1심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전부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를 주저없이 침범,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입혔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무안군수 이번엔 인사비리 연루...돈 건넨 조합장 영장

조합장이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군수는 같은 혐의로 추가된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군수는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그는 2015~2016년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000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B씨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 무자격 안마사 고용 약정 협박 수천만원 뜯은 일당 '털미'



○...마사지 업소를 돌며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 신고하겠다'고 위협,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털리.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52)씨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1년여간 광주시 서구 A마사지업소, 경기도 용인의 B마사지업소 업주에게서 11차례에 걸쳐 총 7500

만원을 뜯어낸 혐의.

○...업주 배모(46)씨 등 2명은 자격증이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건, 영장 타격이 불가피해 돈을 내주며 영공 않고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일당의 두목격인 이씨가 최근 "매월 100만원씩 주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또다시 돈을 요구해오자 경찰에 범행을 신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010-6670-9800 |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2699-5300**

<p><b>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b></p> <p><b>전원주택 강력추천</b></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광주에서 40분</p> <p>□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p> <p>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p> <p>◆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p>	<p><b>동구 수기동 상가매매</b></p> <p>20층 중 6층(45평)</p> <p>□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p> <p>▶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p> <p>□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p> <p>□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p> <p>□ 광양 상이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p>	<p><b>평택 전문</b></p> <p>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p> <p>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p> <p>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p> <p>→(시 세) - 평당 200만 (신착순) → 평당 150만</p> <p>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p> <p>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p> <p>▶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p>	<p><b>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물건추천</b></p> <p>□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평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p> <p>□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p> <p>□ 부안군 진서면 (속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p> <p>▶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p> <p>□ 군산시 낙운동 (사우나) 토 132평, 건 334평 대단위 아파트 인근 월수익 2,000만 !!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1천</p> <p>□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7억 1분 충청로 중심 상업권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4천</p>	<p><b>경매 무료교육</b></p> <p>□ 매주 월요일 10시 (주말반, 토요일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 기초 교육 입찰방법</p> <p>▶경매 실전 전문반◀</p> <p>경매 교육받으면서 실전주주로 할실분</p> <p>★ 경매로 확실히 수익 내실분 ★ (특수경매, 개발, 시행, 토지건)</p> <p><b>직원모집</b></p> <p>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정연오피스텔 (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p>
--	---	--	--	--